

국내 성인 경제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최병일* · 심재학**

【요약문】 본 논문은 2021년에 우리나라 성인 3,000명의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의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나이, 지역, 성별 등과 같은 인적 특성과 경제교육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가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성인 대상 경제이해력 조사의 문항은 기획재정부의 위탁으로 KDI가 개발하였으며, 연구 결과 국내 성인의 경제이해력은 30대, 전문직, 남성, 서울 지역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이해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와 달리 경제이해력은 20대의 응답률이 40대, 5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경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역설적으로 경제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교육의 필요를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의 경제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 대상 경제교육의 정교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경제이해력, 경제태도, 경제교육 실태, 경제 교육 소외 계층

* 제1저자, 매일경제신문사 경제경영연구소 콘텐츠 팀장(choi0704@mk.co.kr).

** 교신저자,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실장(jhshima@kdi.re.kr).

I. 서론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정부는 물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경제교육지원법의 취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높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경제교육 활성화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 경제교육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경제활동을 본격화하는 성인들의 경제교육은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에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위탁해 조사한 우리나라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이해력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에 경제이해력에 대한 연구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교사나 대학생에 국한되었다. 금융이해력의 경우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측정해 발표하고 있으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제이해력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동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의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요인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인 경제교육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은 경제이해력 및 경제태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 III절에서는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자료를 구성하는 표본에 대한 설명과 회귀 모형을 비롯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IV절에서는 경제이해력 측정 결과를 소개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를 기술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경제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해석을 포함했다. 끝으로 V절 결론은 앞서 논의 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II. 선행연구

경제 이해력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대학생들과 국내 대학생들의 성취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다수이다(김경모, 2007; 한국경제교육협회, 2011; 박상은, 2014). 한진수(2006)와 안병근(201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이해력을 측정해 소득수준, 성별, 경제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김경근(1994)과 오영수(2011)는 중학생의 경제 이해력을 측정해 분석했으며 성별, 지능, 지역 등이 경제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전홍렬(1993)과 최종민(2010)은 TEL 문항을 활용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이해도를 측정하였으며, 학년, 성별, 교사의 경력 등이 고등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유정호(2003)가 TEL 문항을 활용해 전라북도 교사들의 경제 이해력을 측정하였으며, 송민자(2008)와 김상규(2008)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TEL과 TUCE(Test of Understanding in college Economics)를 활용해 경제 이해력을 측정하였다.

해외의 경제 이해력에 대한 연구는 Walstad(1979, 1980)가 경제 이해력이 경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고, Jackstadt and Brennan(1983)은 고교생들 대상으로 경제 지식과 태도의 관계를 연구했다. 연구결과 경제 이해력과 경제학 관련 수강 여부는 시장 경제 체계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 및 경제학에 대한 태도와 경제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한경동(2008)은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응답자들의 경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장경호·한경동(2010)은 ATE(Attitude toward Economics) 문항을 국내 상황에 맞게 번역하여 KDI가 과거 시행했던 ‘경제한마당’에 참여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제학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바 있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태도는 성적, 부모의 학력,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태도에 대한 다른 연구는 전창완(2009)이 SEA의 EAS(Economic Attitude Sophistication) 문항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교생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연구했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표본

본 연구는 국내 20~60대 이상의 성인 남녀 3,000명을 표본으로 시행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478명과 여성 1,522명으로 각각 49.3%와 50.7%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20대 503명(16.8%), 30대 577명(19.2%), 40대 652명(21.7%), 50대 610(20.3%), 60대 이상 658명(21.9%)로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나타냈다. 응답자들의 추가적인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이 인구센서스에 기반한 표본으로서 국내 인구의 대표성을 갖도록 지역, 직업, 학력, 소득 계층의 비중을 적절히 안배되었다.

<표 1> 경제 이해력 조사 대상 현황

	구분	인 원	비 중
지 역	서울	659	22.0%
	인천/경기	955	31.8%
	충청	292	9.7%
	전라	259	8.6%
	경상	761	25.4%
	강원	74	2.5%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72	15.7%
	100~199만원	199	6.6%
	200~299만원	781	26.0%
	300~399만원	769	25.6%
	400~499만원	436	14.5%
	500만원 이상	343	11.4%
직 업	농림/축산/수산업	40	1.3%
	자영업	499	16.6%
	서비스/생산/노무직	983	32.8%
	사무/관리/전문직	924	30.8%
	주부	419	14.0%
	학생	84	2.8%
	은퇴/무직	51	1.7%

구분		인 원	비 중
학력	중졸 이하	162	5.4%
	고 졸	1,273	42.4%
	대학 재학 이상	1,565	52.2%
총 계		3,000	100%

2. 경제이해력 및 경제교육 의견조사 문항

1) 경제이해력 측정 문항

본 연구에 사용된 성인 대상 경제이해력 문항은 기획재정부의 위탁으로 KDI가 개발한 연구보고서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 연구: 경제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를 포함해 한국경제교육협회가 2012년에 연구한 「표준 경제 개념 연구 개발」등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설문 문항은 표준 경제개념의 인지 영역인 지식, 이해, 적용으로 각각 구성되었고, 최종 20개 문항에 대한 인지 수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경제 이해력 설문 요지 및 표준 경제개념의 인지 수준

문항 번호	설문 문항 요지	표준 개념	영역 구분
1	합리적 선택을 가장 잘 설명한 것	합리적 선택	지식
2	재해로 배추 농사 피해 시 나타날 현상	수요 공급	지식
3	돼지 사료값이 올랐을 때의 변화	수요 공급	이해
4	외국산 운동화 수입 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국제 거래	이해
5	원/달러 환율 상승시 유리한 경제주체	환율	이해
6	세율 조정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법	세금과 정부지출	지식
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 예상 파급효과	금리	이해
8	세금에 관한 올바른 설명	세금	지식
9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	정부의 역할	지식
10	보험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금융과 자산관리	적용
11	연금에 대한 올바른 설명	금융과 자산관리	적용
12	정기예금의 실질 이자율	금융	이해
13	개인의 신용관리 방법	금융(신용)	적용

문항 번호	설문 문항 요지	표준 개념	영역 구분
14	대출에 관한 옳은 설명	금융과 자산관리	이해
15	자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	금융과 자산관리	이해
16	재무관리의 방법	재무관리	적용
17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설명	노동	적용
18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설명	소비	이해
19	디지털 무역에 대한 설명	국제거래	이해
20	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노동	이해

2) 경제교육 의견 측정 문항

이번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경제이해력과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성인들이 직면한 경제교육에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의 영역을 구분하여 아래 <표 3>과 같은 8개 문항을 추가로 조사했다. 특히 1, 4, 5, 8번 문항으로 리커트 척도로 그 값을 활용할 수 있게 문항이 설계되었다. 따라서 해당 문항들은 경제에 대한 태도 및 경제교육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정량 변화되어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이번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표 3> 경제교육 실태

문 항	내 용
1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2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경로
3	최근 3년 이내 학교 밖(사회) 경제교육을 받아본 경험 여부
4	학교 밖(사회)에서의 경제교육 필요 여부
5	성인 학습자 대상 경제 교육 기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6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 분야_순위
7	선호하는 투자 방법
8	경제에 대한 인지 정도

3) 분석 모형

본 연구는 부록에 있는 설문 문항 가운데 A1, A2, A4, A5, A8 항목을 리커트 척도로 활용해 경제교육 실태에 대한 응답자의 성향을 의미하는 변수로 활용했다. 또한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SQ1, SQ2, SQ3, SQ4, SQ5, SQ6 문항을 통해 취득한 응답자의 나이, 지역, 성별, 직업, 소득과 같은 인적 특성이 경제이해력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래 식(1)은 이와 같은 응답자들의 경제에 대한 태도와 인적 요인 변수들을 반영한 회귀식이다.

$$y_i = \alpha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beta_4 x_{4i} + \beta_5 x_{5i} + \beta_6 x_{6i} + \beta_7 x_{7i} + \beta_8 x_{8i} + \beta_9 x_{9i} + \beta_{10} x_{10i} + \beta_{12} x_{12i} + \beta_{13} x_{13i} + \beta_{14} x_{14i} \quad (1)$$

식(1)의 개별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표 4>와 같다. X1은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문항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응답 값이 커지는 리커트 척도이다. X2는 경제 교육 수강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경제교육을 받은 집단을 '0', 그렇지 않은 집단을 '1'로 구분하였다. X3은 학교 밖 경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부정적일수록 높은 값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었다. X4는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답변이다. X5는 응답자 스스로가 경제 이해력에 대한 본인의 소양을 묻는 문항으로 경제 이해력이 낮다고 평가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다. X6, X7은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광역시에 거주자하는 응답자는 X6에 '1' 값을 부여했다. X7은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에게 '1'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X8은 응답자의 성별을 확인하는 변수로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 응답자들에게 '1'을 부여한 더미 변수이다. X9은 응답자들의 연령이다. X10, X11은 저숙련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직업을 확인하는 변수로 X10은 고숙련 직업군을 의미하며, X11은 주부, 무직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하는 더미 변수이다. X12, X13은 응답자의 학력은 묻는 문항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중졸은 X12 더미변수를, X13은 대학 재학 이상을 의미하는 더미 변수이다. 끝으로 X14는 소득을 의미하는 변수로 100만 원 단위로 소득 집단을 분류하였다.)

1) 소득이 100만 원 미만 그룹 1, 500만 원 그룹6

<표 4> 모형 변수 설명

영역	변수	내 용	변수 종류	설문 번호
경제 교육 의견	X1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자평	리커트2)	A1
	X2	경제 교육 수강 여부	더미3)	A3
	X3	학교 밖 경제 교육의 필요성	리커트4)	A4
	X4	성인 경제 교육 기반에 대한 만족도	리커트5)	A5
	X5	경제 이해력에 대한 자기 평가	리커트6)	A8
응답자 인적 특성	X6	서울외 광역시 거주자	더미	SQ1
	X7	시·군지역 거주자	더미	SQ1
	X8	성별	더미	SQ2
	X9	연령	정량변수	SQ3
	X10	고숙련 직업군	더미	SQ4
	X11	비경제활동인구	더미	SQ4
	X12	중졸 학력	더미	SQ5
	X13	대학재학 이상 학력	더미	SQ5
	X14	소득 수준	리커트	SQ6

IV. 연구 결과

1. 이해력 측정 및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른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아래 <표 5>와 같다. 소득에 따른 경제이해력을 분석한 결과 200~299만 원과 300~399만 원의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역시 컸다. 이는 직업별 성적 현황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그룹이 사무/관리/전문직으로 해당

-
- 2) 매우그렇다 1, 전혀 아니다 5
 - 3) 경제교육 받은 적 없다 0, 있다 1
 - 4) 경제교육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1, 전혀 아니다 4
 - 5) 경제교육 충분정도, 만족도 매우 그렇다 1, 전혀 아니다 4
 - 6) 경제를 잘 아는가 매우 그렇다 1, 전혀 아니다 4

직군의 소득이 해당 소득과 관계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경제이해력은 30대, 20대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응답자 가운데 40대부터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20대, 30대의 경제이해력 점수가 높고, 다른 연령대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평균 점수가 감소하는 것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년마다 측정하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7) 이와 같은 상이한 조사 결과는 경제 지식을 습득하는 일반적인 경로와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가 서로 다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금융 지식의 경우 대출, 예금과 같은 실제적인 금융 활동을 생활 가운데 경험함으로써 습득하는 지식이 많아 20대에 비해 실무 경험이 많은 30, 40대의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경제 지식의 경우 현실에서 경험으로 제반 지식을 얻기보다는 학교 강의와 같은 전형화된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이해력이 높고, 비교적 학교 교육을 많이 이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직군 응답자의 경제 이해력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별 경제 이해력은 사무/관리/전문직 평균 점수가 61.53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농림/축산/수산업 그룹과 주부 그룹의 평균 점수가 각각 52.75점과 52.03점으로 1위 그룹과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응답자 특성별에 따른 경제이해력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구 분		평균점수	표준편차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53.88	20.75
	100~199만원	54.57	18.99
	200~299만원	58.96	20.94
	300~399만원	56.68	23.15
	400~499만원	55.83	20.71
	500만원 이상	54.29	21.22

7) 2020년에 시행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청년층의 평균 점수는 64.7점으로 전체 평균인 66.8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평균점수	표준편차
지 역	20대	58.97	20.92
	30대	59.63	22.36
	40대	57.10	21.20
	50대	56.36	21.54
	60대 이상	50.47	20.02
직 업	농림/축산/수산업	52.75	18.64
	자영업	55.98	19.78
	서비스/생산/노무직	53.39	21.43
	사무/관리/전문직	61.53	21.88
	주부	52.03	20.97
	학생	57.14	19.59
	은퇴/무직	56.96	19.98
학 력	중졸 이하	44.81	17.93
	고졸	54.22	20.62
	대재 이상	59.17	21.84
총 계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경제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20개 문항에 대한 정답률과 변별도는 아래 <표 6>과 같다.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56.3%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변별도는 0.40에서 0.77로 대부분의 문항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 정답률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정답률이 40~60%로 난이도가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문항은 11개로 전체 문항에서 과반을 차지했으며, 정답률이 60~80%로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문항들은 8개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정답률이 20% 미만으로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문항과 정답률이 80%를 상회하는 아주 쉬운 문항은 없었다.

<표 6> 문항별 정답률 및 변별도 현황

번호	측정 내용	주제	영역 구분	정답률 (%)	변별도
1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	지식	64.9	0.51
2	재해와 농작물 가격 변화	수요 공급	지식	77.3	0.5
3	공급과 시장 균형의 변화	수요 공급	이해	60.6	0.49
4	수입과 생산자·소비자 잉여 변화	국제 거래	이해	53.4	0.67
5	환율 변화와 실물경제	환율	이해	61.7	0.63
6	세율 조정과 경기 안정	세금과 정부지출	지식	59.2	0.58
7	기준금리와 실물 경제	금리	이해	36.7	0.56
8	세금에 관한 올바른 설명	세금	지식	43.5	0.43
9	사회보장제도	정부의 역할	지식	63.4	0.56
10	보험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금융과 자산관리	적용	59.6	0.48
11	연금에 대한 올바른 설명	금융과 자산관리	적용	59.9	0.42
12	정기예금의 실질 이자율	금융	이해	44.3	0.41
13	개인의 신용관리 방법	금융(신용)	적용	56.7	0.77
14	대출에 관한 옳은 설명	금융과 자산관리	이해	63.1	0.43
15	자산의 일반적 특성	금융과 자산관리	이해	63.6	0.54
16	재무관리의 방법	재무관리	적용	65.4	0.72
17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설명	노동	적용	49.4	0.49
18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설명	소비	이해	42.7	0.4
19	디지털 무역에 대한 설명	국제거래	이해	52.7	0.51
20	기술 발전과 일자리 변화	노동	이해	47.9	0.59

2.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20개 문항의 모든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 (1)은 응답자들의 경제 이해력에 유의미할 것으로 추정된 대부분 변수는 유의수준 5% 혹은 1% 이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응답자가 A1 변수는 다른 설명 변수들과 달리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1은 응답자가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설계된 리커트 척도이다. A3 최근 경제교육 이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교육을 받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경제 이해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 2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체 3,000명의 표본 가운데 경제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70명 수준으로 소수이다. 따라서 해당 결과 값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해석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A4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1% 유의수준에서 경제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5 문항의 경우는 성인 대상 경제 교육 기반이 충분한지를 묻는 문항으로 경제 교육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경제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찾는 사람들의 경우 경제 이해력은 높지만 경제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충족하는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A8은 경제를 응답자가 자신의 경제 지식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경제를 잘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경제 이해력이 더 높은 인지 부조화가 해당 모형에서 확인되었다. SQ1 질문은 서울을 기준으로 광역시와 비광역시(시도군) 지역의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경제 이해력을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 더미 변수이다. 회귀분석 결과 서울이 아닌 지방 거주자들의 경제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광역시보다 비광역시 지역의 경제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도시·비광역시는 경제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적거나 경제 이해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경제 이해력의 차이도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학력이 경제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와 같이 고졸에 비해 중졸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에는 1%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다중회귀 분석결과

VARIABLES		Result	
변수명	설 명	Coefficients	T-values
X1	합리적인 경제생활	0.154	(0.103)
X2	경제 교육 수강 여부	-1.875***	(0.491)
X3	경제 교육 필요성	-1.357***	(0.126)
X4	경제 교육 만족도	0.770***	(0.097)
X5	경제 이해력에 대한 자평	0.289**	(0.112)
X6	광역시 거주자	-1.149***	(0.183)
X7	시군지역 거주자	-1.445***	(0.189)
X8	여성	-0.545***	(0.159)
X9	나이	-0.006	(0.007)
X10	고속권 직업군	1.016***	(0.192)
X11	비경제활동인구	-0.999***	(0.252)
X12	중학 졸업	-1.859***	(0.357)
X13	대학재학 이상	0.328*	(0.194)
X14	소득 수준	-0.419***	(0.067)
	Constant	12.765***	(0.681)
	Observations		3,000
	R-squared		0.13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V. 결론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과 경제 교육 실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청소년 혹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와 금융 이해력을 성인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경제 교육 연구의 주된 소재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을 측정하는 연구 결과로 차별화된 위치를 갖는다.

이번 연구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하고, 도시 지역 거주자의 경제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경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지하고, 경제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제 이해력이 높은 것도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그러나 스스로 경제 지식이 높다고 자평할수록 경제 이해력이 낮은 것은 일반인들의 경우 본인이 주변의 여러 경로를 통해 습득한 경제 지식이 실제 검증된 이론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유튜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중소 매체들이 검증되지 않은 경제 콘텐츠를 제공해 향후 국민의 경제 관련 오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을 높여 개인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금융을 잘 알고 있다고 과신하는 사람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아 잘못된 금융 관련해 위험한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금융연구원 김자봉(202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인 대상 경제교육 방향 설정이나 정책 수립 시 깊이 유념해야 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과 40, 50대의 경제 이해력이 남성과 20, 30대에 비해 낮은 것은 다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이해력 검증을 할 경우 여성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며, 금융 이해력의 경우 40, 50대의 이해력 점수가 20대를 상회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향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성인을 대상을 진행된 연구인 만큼 지속적으로 유사한 조사를 실시해 시간의 연속성을 가진 패널 자료를 분석을 해야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청소년들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PISA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문항을 해외에서도 실시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한국의 이해력을 입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KDI(2020), 2020년 전국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 김경모·한경동·장경호(2010), 한국 중학생 수준의 경제이해도 분석, 2010 한국경제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31-51.
- 김상규(2008), 한·미·일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비교 연구, 경제교육연구, 15(2), 65-88
- 김용자(1992), 우리나라 성인경제교육에 관한 실태 분석,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 290-316.
- 김용자(2007), 학교 밖 경제교육 실태조사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우리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KDI-한국경제학회 공동 세미나 자료집, 49-90.
- 김자봉(2020), 금융교육의 현황과 과제: 금융교육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검토, 한국경제포럼, 13(2), 19-43.
- 김준태(2014), 청소년 경제교육의 목표 설정 및 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교육문화연구, 20(4), 101-135.
- 김진영·박영석·이민정(2009),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중등사회과교사들의 인식 조사 연구, 경제교육연구, 16(1), 1-28.
- 박문규(2002), 고등학생 경제이해력 테스트 조사 결과, 경제교육연구, 9, 33-61.
- 박상은·노현중(2017), 경제에 대한 관심도와 경제 이해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교육연구, 24(3), 109-128.
- 유정호(2003), 고등학교 경제교육과 학생들의 이해력 -경제이해도 테스트 결과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23, 4-22.
- 이소연(2012), 경제교육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교수 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홍렬(1993), 한국 고등학생들의 경제이해력 및 그 결정 변인에 관한 실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홍택·이영섭·김진영(2008),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최식인(2007), 현행 경제교육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창의성 교육 방안, 사회과 교육, 13(2), 77-93.
- 최종민(2011),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목표 및 기조에 관한 비판적 접근, 경제교육연

구, 18(1), 23-44.

한국개발연구원 종합교육연수원(2017), 우리나라 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의견조사: 학생, 교사, 일반국민, KDI 종합교육연수원.

한진수(2012), 한국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 수준, *경제교육연구*, 19(1), 1-25.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10),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New York: Council for Economic Educaion.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2021), National Standards for Financial Literacy. New York: Council for Economic Educaion, file:///C:/Users/SAMSUNGPC/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AUZ9CBSA/national-standards-for-financial-literacy.pdf.

Jang K. and K. Jang (2013),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conomic Knowledge from the Result of the Test of Economic Knowledge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0(2), pp. 109-133.

Rivlin, M. (1999), On Economic Literacy at the Economic Literacy Conferenc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Minnesota, <http://minneapolisfed.org/pubs/region/99-06/Rivlin.cfm>.

Walstad, W. B. and J. Soper (1989), On Measuring Economic Attitudes, *Research in Economic Education*, 9(1), pp. 41-45.

Walstad, W. B. (1987), Evaluating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cies: A Comment,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8(2), pp. 250-254.

_____ (1997), The Effect of Economic Knowledge on Public Opinion of Economic issue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8(3), pp. 195-205.

Walstad, W. B., K. Rebeck, and R. B. Butters (2013), Test of Economic Literacy: Development and Result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4(3), pp. 298-309.

<Abstract>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Economic Literacy of Adults in Korea

Byoungil Choi* · Jae Hak Shim**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adults' economic literacy.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an economic literacy survey of 3,000 Korean adults. Factors affecting economic literacy of adults were analyzed.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region, and gender, and respondents' attitudes toward economic education on economic literacy. The questions to investigate economic literacy were developed by KDI.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domestic adults in their 30s, professionals, men, and residents of Seoul had relatively higher economic litera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higher the economic literacy. Unlike the results of the financial literacy measurement conduc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Bank of Korea,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those in their 20s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in their 40s and 50s. Respondents who recognized that they knew the economy well paradoxically showed low economic literacy, and the group who did not recognize the need for economic education showed relatively low economic literacy.

Key words: Economic attitude, Economic literacy, Economic education status, Economic education underprivileged

원고접수: 2023년 03월 15일 심사일: 2023년 03월 17일 ~ 2023년 04월 07일
게재확정: 2023년 04월 08일

* First Author. Director, Senior Researcher, Business and Economy Research Institute, Maeil Business Newspaper(choi0704@mk.co.kr).

** Corresponding Author, Division of Economic Educatio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jhshim@kdi.re.kr)